



글·사진: 편집부

# 종오리 검정 및 종오리 DB시스템 운영 교육

1. 일시 : 2009. 09. 02 (수) 11:00 ~ 15:30

2. 장소 :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 1층

3. 강의 내용 : 오리산업 정책방향

- 농림수산식품부 허태웅 과장

**종오리 검정의 이해**

-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

**종오리 DB시스템**

- 한국오리협회 우재규 과장

- 애니인포넷 조기행 이사

본회는 지난 9월 2일(수), 대전 유성에 있는 계룡스파텔에서 전국의 종오리 부화장 및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종오리 검정 및 종오리 Data Base 시스템에 대한

운영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종오리 검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검정 실시요령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오리 Data Base 시스템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입력 및 활용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종오리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시행하였다.

본회 이창호 회장은 “오리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그 결과 2008년 축산부문 6위를 차지하였다”며, “이번 교육이 오리산업 성장에 걸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함과



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 ② 교육 중인 이강현 전무 ③ 교육 중인 조기형 이사 ④ 농식품부 허태웅 과장 ⑤ 우제규 과장 ⑥ 인사말 중인 이창호 회장

동시에 농가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키워 오리산업 안정화의 기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강의를 맡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허태웅 과장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오리산업을 설명하고,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도에는 오리생산액이 농업부문 7위를 하였으나, AI등 질병발생에 따라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준의 향상이 요구되며, 계열화 비율이 높은 반면 산업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며 오리산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뒤이어 본회 이강현 전무는 현행제도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될 종오리 일반검정제도를 설명하며 앞으로 검정을 통해 종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통을 유지하여, 질병 없는 양질의 오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오리DB시스템 운영의 설명을 맡은 본회 우제규 과장은 종오리 DB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종오리 육성·산란관리 기록

부, 부화관리기록부의 구성 및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료는 월 1회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수집하고 협회에서 자료를 취합해 입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종오리 DB시스템을 통해 농장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확한 육성관리, 산란율 및 부화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애니인포넷 조기형 이사는 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간단한 질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직영농장과 위탁농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통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하다는 화정축산 이신 대표의 의견에 이어, “보안의 세부 규정이 필요하고 최종 로그아웃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 “닭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혼용된 점을 개선해 달라” 등 여러 참석자들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교육을 수료한 전 참가자에게는 교육수료증을 배부하였다.